

현대차그룹, 전기차 대중화 플랫폼... '시장 위기론' 정면돌파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도 시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지난해 전기차 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30% 가량 성장세를 기록했다. 성장 폭은 둔화됐지만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경쟁력 있는 모델 출시와 기술력 강화를 통해 전기차 시장의 리더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전기차 성장폭 둔화... 위기론 부상 주요 브랜드, 생산계획 재정보 나서 현대차그룹, 신차 등 경쟁력 강화

1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1407만대로 33.5%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 109%, 2022년 57%의 가파른 성장세와 다른 양상이다. 이에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계획을 축소·연기하거나 하이브리드 생산을 늘리는 등 생산 계획 재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성장세 둔화로 제기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 위기론'을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현대차는 최근 전기상용차에 적용할 새로운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인 'ST1'의 디자인을 공개했다. ST1은 새시(차량의 뼈대)와 캡(승객실)만으로 구성했다. 차량의 뒤쪽의 적재함은 사용 목적이나 방법 등에 따라 최적화해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확장할 수 있다.

차명인 ST1은 '서비스 타임'의 약



현대차가 새롭게 공개한 ST1 사시캡 외장 이미지.



기아 EV6(왼쪽부터), EV4콘셉트, EV5, EV3 콘셉트, EV9.

자다. 폭넓은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숫자 1은 첫 번째 모델임을 의미한다. 현대차의 1톤 트럭인 '포터'로 대표하는 기존 상용차가 생산 단계부터 정해진 형태로 제작된다면 ST1은 고객별 요구사항을 고려해 주문 제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ST1은 다채로운 확장 가능성을 지닌 비즈니스 플랫폼"

이라며 "물류와 배송 사업에 최적화된 차량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용도에 맞춘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는 만큼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중 ST1의 주요 사양과 제원, 가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ST1의 카고와 카고 냉동 모델의 판매를 국내부터 시작한다.

기아는 올해 볼륨 모델인 EV3 출시

로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고 현대차의 ST1과 비슷한 의미로 목적기반차(PBV)를 내놓으며 브랜드 경쟁력 확대에 나선다.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기아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 본사에서 개최된 제 8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기차 대중화와 시장의 터어 윈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임을 강

조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전기차는 기아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인 만큼 EV6와 EV9으로 대변되는 기존 상품경쟁력을 기반으로 (EV3를 통해)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겠다"면서 "EV 라인업의 성공적 안착과 PBV의 사업 기반 확보를 통해 지속 성장 공고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출시 예정인 PBV 비즈니스는 기아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핵심사업"이라며 "오토랜드 화성에 건설 중인 이보 플랜트(EVO Plant)를 비롯해 생산, 판매 에코시스템,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선포 상반기 중 주요사양·가격 공개 예정 기아 연내 EV3 등 신규 라인업 출시

기아는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PV5·PV7·PV1의 콘셉트 실물을 처음 공개된 바 있다. PV5 콘셉트 모델은 책상과 같은 평면을 제공하는 운전석과 조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티어링휠을 통해 운전자에게 사무실과 같은 경험을 제공해 주목을 받았다. 대형 PBV인 PV7은 라인업 가운데 가장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주행 거리도 길어 장거리 물류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소형 PBV인 PV1은 단거리 물류 운송에 최적화된 모델로 드라이빙 모드를 사용해 좁은 공간에서 회전 반경을 최소화했다.

/양성원 기자 ysw@metroseoul.co.kr

공정위 '2023 기업결합 동향·특징' 발표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결합 활발... SK, 26건 '최다신고'

경기침체 우려로 전체건수 감소 대규모 국제기업 결합은 증가

지난해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우려로 기업결합 건수는 감소한 반면, 대형 국제 기업결합 영향으로 금액은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9.7% 감소한 927건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기업결합 금액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 건에 힘입어 전년 대비 32.2% 증가한 431조원이었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 대비 137건 감소했고, 기업결합 금액도 55조원으로 3조원 줄었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은 전년 대비 건수(11건→19건)와 금액(0.5조원→6.2조원)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31건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했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일부 대형 기업결합 영향으로 전년 대비 56.8% 증가한 30조원이었다.

SK가 26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

(2023년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상위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간 기업결합 포함		계열사 간 기업결합 제외	
집단명	건수	집단명	건수
SK	26	SK	20
중흥건설	13	중흥건설	13
한화	9	미래에셋·LS·포스코	8
현대자동차·네이버·LS 미래에셋·포스코·농협	8	GS	7
GS·카카오	7	농협	6
		DL·다우유·삼성·삼천리	5

았고 중흥건설이 13건, 한화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 개편인 계열사 간 기업결합을 제외하면 SK(20건), 중흥건설(13건), 미래에셋·LS·포스코(각 8건) 순이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88건으로 전년 대비 37건 증가했고, 기업결합 금액은 3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조원 증가했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 기업 결합은 40건에서 49건으로 증가했으나, 금액은 18조원에서 8조원으로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628건(67.7%), 제조업이 299건(32.3%)을 차

지한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216건), 정보통신방송(83건) 분야 기업결합이 많고,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86건), 기계금속(85건) 분야 기업결합이 많았다.

특히, 전기차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급격히 성장한 2차전지 업종 기업결합이 눈에 띈다. 국내외 기업들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EU(유럽연합)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폐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목적의 기업결합이 이뤄졌다.

또 진입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들이 신규로 신용정보

업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 3사 등 5개 사업자가 합작회사로 개인신용평가 회사를 신설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의 기업결합(89조원), 브로드컴과 브에엠웨어의 기업결합(78조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결합이 심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39건을 심층심사했고, 이 가운데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등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23건에는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춰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작년 韓 경제성장률 1.4% OECD 평균에도 못 미쳐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1.5%에도 못 미치며 주요국 평균을 밑돌았다.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로, OECD 평균인 1.7%를 하회했다. 이로써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38개국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국은 지난 2019년에 성장률 2.2%로 평균(1.8%)에 앞섰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한 2020년에도 -0.7%로 OECD 평균(-4.2%)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이후 2021년(한국 4.3%, OECD 6.0%)과 2022년(한국 2.6%, OECD 2.9%), 2023년 등 3개년 내리 평균수준보다 낮은 경제성장 속도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지난해 일본(1.9%)과 미국(2.5%), 호주(2.0%)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모두 평균을 넘어섰다. 멕시코(3.2%)와 튀르키예(4.5%) 등은 위축된 세계 경제 속에서도 돋보이는 수치를 기록했다.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평균도 OECD 평균인 1.7%에 달했고, G20은 전년(2022년)과 동일한 3.2%를 기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